

발간사

무형유산보호협약이 유네스코 2003년 총회에서 채택, 결정된 지 10주년을 맞이한 2013년 가을에, 지난 10년간의 협약의 이행과 실천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발전과제를 전망해 보기 위해 우리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광주의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협약 10주년 기념 국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0년간의 노력: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모인 이 국제회의에서 우리는 2003년 무형유산보호협약이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러 나라들에 미친 영향과 성과들을 살펴보면서,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장려해야 하는 이유와 그 가치에 대해 국제적 안목을 가진 여러 전문가들과 협약의 실천을 위해 무형유산보호활동에 헌신해 온 여러 실무 책임자들을 초청하여 이론적 논의와 실천적 체험을 나눌 수 있는 유익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발제문들과 토론문들은 2003년 협약이 무형유산의 보호와 전승 및 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전 세계에 미쳤으며, 여러 나라에서 법적 제도화와 목록화, 의식제고 및 학문적 연구에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협약의 실천이 아직 유네스코의 대표목록에 등재시키는 일에만 열심이고, 참으로 귀중한 무형유산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막고, 전승 노력을 통해 보호해야 하는 일에는 아직 미흡할 뿐 아니라, 엄청난 국가적 노력과 공동체의 관심이 요구된다는 점도 적절히 지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무형유산보호가 인류의 정신문화를 발전시키며 문명의 진보를 이루는데 어떤 공헌을 해 왔는가를 밝혀준 귀중한 논문들이 발표되었고, 유네스코의 무형유산보호협약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역사와 배경이 설명된 발제문들이 수록되어, 이 보고서는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연구와 토론에 중요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무형유산의 아시아적 가치”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해 주신 하버드대학교(현재 북경대학교) 동양철학과 투 웨이밍 교수는 이성중심의 계몽주의 한계를 극복하는 영성적 휴머니즘(spiritual humanism)을 정신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내세우면서, 이성과 감성, 영혼과 육체를 결합하는 통합적 영성 문화를 아시아적 가치와 유교문화 전통 속에서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무형유산보호협약이 만들어지기까지 유네스코의 「문화와 발전」 논의를 이끌어오면서 무형문화유산(ICH)의 개념설정과 범위를 규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 오신 멕시코의 인류학자 이자 유네스코 문화담당 부총장을 맡았던 로데스 아리즈페 교수께서 발표해 주신 “무형문화유산의 계보”는 우리들에게 협약의 배경과 역사, 공동체와 무형유산의 관련성에 대해 많은 정보와 깊은 통찰을 전해주었습니다. 학교 강의 일정으로 직접 참석하시지는 못했지만, 강연이 녹화된 비디오를 보내주셔서 참석자들은 40여 분 동안 집중해 경청하면서 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태지역의 여러 나라들에게 미친 협약의 성과와 함께 무형유산의 보호, 증진이 성공할 수 있는 방향과 과제를 지적해 주신 팀 커티스 유네스코방콕사무소 문화부장의 발제문도 협약의 지난 10년 평가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무형유산보호협약이 제정될 당시 유네스코 본부, 사무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아이카와 노리코 여사가 협약이 의무화하고 있는 무형유산 목록화의 제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선방향을 제안해 주신 내용도 매우 유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몽골, 베트남, 타지키스탄, 인도 및 태평양지역에서 무형유산보호 활동을 해 오신 여러 전문가들과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경험한 이야기들을 전해 주신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의 발제문에서 말씀드렸듯이, 「2003년 무형유산보호협약」은 대단한 성공이었고 앞으로 각국의 제도개선과 보호활동, 연구발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보고서가 아태지역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회원국 여러 나라에서 무형유산보호와 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원고를 써 주시고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이 삼 열